

전문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입시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김영희* · 김성봉**

초 록

본 연구는 진학률이 취업률을 훨씬 상회하는 전문계 고등학교의 현실 속에서 전문계고 3학년 학생들의 대학입시 경험을 현상학적으로 이해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다. 11명의 연구 참여자를 심층 면담한 후, Colaizzi의 현상학적 자료 분석방법에 의해 이들의 대학입시 경험을 들여다 본 결과, 삶의 기본전제로서의 대학, 불안과 임기응변, 자족과 소외, 진로고민과 현실과의 타협, 비상시도, 공교육에 대한 불만이라는 6가지 주제로 정리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에 기초해 전문적인 진로지도 및 진로상담, 교육결과의 균등화 노력, 전문계고 역량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 전문계 고등학교, 입시경험, 현상학적 연구

* 제주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과정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교수, 교신저자, edutopia@cheju.ac.kr, 011-639-0009, 064-754-2166(연구실)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기는 심리적, 신체·생리적, 인지적 변화를 겪으면서 자아정체감 확립을 위해 혼란과 방향을 경험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개인의 적성과 소질을 찾을 수 있는 다양하고 심도 있는 경험, 경험과 환경을 조화시켜 나가는 충분한 고민, 자기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학문습득의 가치발견, 다원화 되어가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창의력 발휘 등이 청소년기 전반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강도 있게 이루어져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은 어떠한가? 청소년기의 주요시기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3년이라는 시간은 한 개인의 미래 설계를 위해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음에도 우리 청소년들은 지나친 학력위주의 입시체제에 내몰린 대학입시에 초점을 맞춘 학업문제에 시름하고 있다. 직업의 세계와 학문의 세계로 진로의 방향이 결정되는 일반계고와 전문계고의 선택조차도 입시위주의 사회 문화적 압력에 따르고 있으며, 그 결과 전문계고 학생 상당수는 고등학교 진학 후에도 대입을 향한 길을 걷고 있다.

2002년부터 전문계고 졸업생의 진학률이 취업률을 상회하기 시작하여 2008년에는 진학률이 72.9%에 이르고 있다는 통계(교육통계 연보, 2008)가 시사하는 바, 국가경제의 근간인 산업체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전문계 고등학교는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는 대학 문호의 확대정책에 따른 고등교육의 보편화, 고학력화에 따른 대학 졸업생의 하향 취업 및 3D 업종 기피현상, 3D 업종 기피에 따른 제조업의 해외 이전과 이에 따른 산업 공동화 현상 등으로 인한 진학률 증가 및 취업률 감소 현상(이성주, 2008)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의 대부분의 전문계 고등학교는 진학과 취업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하는 현실에 놓여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대다수의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기존의 교육과정인 직업준비 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틀에 불만을 나타내며 다양한 전문 교과목을 요구하고 있으며(김명화, 2010), 대학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은 일반 교과목에 대한 자신의 실력 부족과 전문 교과에 비해 국·영·수 등 기본 교과목의 실력을 향상시키기에는 수업시수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최금숙, 2009). 이러한 요구와 지적은 오늘날 우리의 교육정책과 관심이 일반계 고등학교의 대학입시로 집중되는 경향과 무관해 보이지 않으며, 이는 결국 전문계 고등학생들로 하여금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 학생들이라는 열등감을 심어 주고(성성진, 2010) 있을 뿐 아니라 국가로부터의 진로지도 및 정책지원으로부터 소외받도록 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와 같이 취업보다는 대학진학률이 훨씬 높고, 전문계 고등학생들이 대학 진학과 관련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게 현실임에도 이들의 대학입시 경험을 다룬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현상학적 방법에 의해 전문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입시경험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고, 이들이 실제로 겪는 대학입시 경험이 무엇인지를 탐색함으로써 교육적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II.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선정

Polkinghorne(1989)에 따르면 현상학적 자료는 현상을 경험해 온 5~25명의 개인들과 면담하여 수집되는 것이 적절하다. 본 연구에서는 눈덩이 표집을 한 결과 2010년 6월 현재 J도 4개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수능 준비를 하고 있는 11명을 표집했다. 참여자의 기본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징(n=11)

참여자 (학교)	학 과	진학 희망학과	수시 접수학과	내신 등급	면접 횟수
J(H고)	정보처리	생활환경 복지학	생활환경 복지학(4년제) 멀티미디어(2년제)	2-3	2
S(Y)	컴퓨터공업	애니메이션	지원안함	4-5	3
D(J)	호텔	의상디자인	지원안함	4-5	2
K(J)	동물자원	생물, 응급구조	생물(4), 응급구조(2)	4-5	3
M(G)	관광정보	일본어	철학과(4)	4-5	3

참여자 (학교)	학 과	진학 희망학과	수시 접수학과	내신 등급	면접 횟수
H(J)	호텔	상담심리	생활환경 복지학(4) 유아교육(2)	1-2	4
Y(J)	일본어	일어일문	환경공학(4), 간호학(2)	4-5	3
I(J)	일본어	디자인	디자인(4)	3	2
O(G)	사이버정보	회계학	회계학(4)	1	3
G(J)	동물자원	조경, 생물	생명공학(4년제)	1	3
B(H)	정보처리	모델관련	모델학과(2년제)	4-5	2

2.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자료 수집은 2010년 6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 30회의 심층면담으로 이루어졌다. 면담시간은 참여자 당 약 3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면담내용은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하였다. 예비모임에서 참여자들의 기본 신상 정보와 진학을 결심하게 된 배경과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하면서 연구목적에 대해 설명하였다. 심층면담 외에 연구 진행 중 참여자들의 심적·환경적 변화에 관한 추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만남이나 전화상담을 전문대학 수시 원서접수 마감일인 10월 7일까지 실시하였고, 학과 선택과 관련된 단회 상담을 하기도 하였다. 면담 진행은 상담실의 편안한 분위기에서 경청과 격려·지지를 통해 여과되지 않은 그들의 생생한 경험을 진술하도록 하였다. 참여자 8명은 자신의 녹취록 및 나머지 3명의 녹취록을 분담하여 진술 그대로 전사하였다. 전사 결과는 연구자에 의한 꼼꼼한 확인 작업을 통해 학생들이 표현한 언어 그대로 필사되었다.

3. 자료처리

필사본에 대한 분석은 Colaizzi(1978)의 현상학적 자료 분석방법에 준하여 이루어졌다. 전문계 고등학생들의 입시경험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데에는 엄밀한 단계적 분석으로 공통주제를 찾아내고, 그 본질적 요소를 집약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필사본을 여러 번 읽으면서 연구 참여자들의 입시경험과 직접 관련된 의미 있는 문구나

문장을 확인하여 의미를 형성한 후 모든 참여자의 기술에서 공통되는 주제들을 모았다. 모아진 주제들이 현상에 대한 심층적이고 철저한 기술로 통합되기까지 질적연구 수업시간의 논의와 교수의 지도과정을 거침으로써, 또한 참여자들과 연구결과를 검증하고 최종 기술에 참여자들의 의견을 포함함으로써 연구과정에서의 권력적 해석의 오류를 최소화 하였다. 즉 연구자 자신이 고 3 시절과 상담 장면에서 겪은 직접적·간접적 경험이나 의미를 괄호치기하면서 학생들의 주관적인 입시경험의 본질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다.

Ⅲ. 연구결과

현상학적 접근은 인간경험의 기술(description)에 대한 분석을 통해 경험의 의미를 밝히고자 하는 귀납적, 기술적 연구방법이다. 현상학적 연구는 살아있는 경험을 지향하며 그 경험의 의미를 포함하여 현상의 본질을 밝혀 기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신경림, 2003).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참여자들의 주관적인 입시경험을 조명함으로써 그 본질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결과 11개의 축어록으로부터 58개의 의미있는 진술과 삶의 기본전제로서의 대학, 불안과 임기응변, 자족과 소외, 진로고민과 현실과의 타협, 비상시도, 공교육에 대한 불만 등 6개의 주제를 도출할 수 있었다. <표2>는 ‘불안과 임기응변’이라는 주제가 도출되기까지의 예다.

<표 2> 주제 도출의 예

유의미한 진술	명확히 나타난 의미	불안과 임기응변
수능공부도 해야 되는데 마음은 복잡하고, 4달도 안 남았는데 머리는 공부공부, 실천은 안되고.. 시험은 물론 다 봐야죠 뭐. 어디서 어떻게 걸릴지, 오히려 수학 같은 과목에서 4등급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실질적인 노력으로 불안을 달래는 대신 요행을 바람	정말 잘하고 재능 있는 것이 없어서 대학을 감질 낮은 학교 보충수업이지만 참석할 수밖에 없음
3학년 되니까 수능이 완전 걱정돼요. 내 성적은 일정한데 자동으로 밀려나겠죠. 그런데도 수능공부를 따로 하지는 않아요. 정시 생각이 없는 거니까 괜찮겠네? 하면서 놀게 되는 거예요. 대신 도움은 안 되지만 보충엔 열심히 참가해요.	형식적인 성적관리	공부는 열심히 안하지만 많은 과목에 응시할 것임 . . .

1. 삶의 기본전제로서의 대학

전문계고 학생들의 입시체험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맥락 속에서의 체험이다. 따라서 전문계 고등학생들의 입시경험으로 이어지는 그들의 배경적인 상황 맥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에 연구 참여자들이 밝히고 있는 전문계 고등학교 입학배경 및 환경적 특성과 정부 취업 안에 대한 그들의 반응 및 대학을 가고자 하는 이유 등을 살펴보았다. 부의 강요로 사격부에 입단코자 입학한 J를 제외한 모든 참여자들은 성적에 맞춘 학교 및 전문학과 선택을 하였다. 그런데 낮은 성적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이들의 환경적 배경은 조금씩 달랐다.

“제가 원래 공부에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닌 거 같은데 중학교 때는요, 하기 싫어서였던 것보다 학교수업 자체가 너무 어려웠던 거 같아요. 고등학교에 와서 학습 멘토를 만나고서야 공부 요령이나 방법을 조금 알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O)

라고 진술하는 O의 말대로 S, K, M, H, G는 학습방임으로 초등학교 5, 6학년부턴 성적에 낮아졌고, 중학교부터는 뭘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웠다고 하였다. Y는 학원 도움까지 받으며 노력했으나 고입 준비로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실패 경험에 익숙해져 갔고, D는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인한 시춘기적 홍역으로, B, I는 예체능 외의 관심부족으로 성적이 낮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H, O, G는 고등학교 성적이 상위권으로 편입되면서 동기화되고 있는데 비해, S, K, M, Y는 낮은 자존감으로 ‘학습된 무기력(learned helplessness)’에 빠져 있었고, D, I, B는 뒤늦은 진로 결정으로 현재의 학업과 수능준비 사이에서의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다. 한편, 모든 연구 참여자들은 진학을 희망하고 있었다. 대학을 가고자 하는 이유로 J, H, O, M, G, D는 더 나은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S, I는 적성을 살리는 전문직을 갖기 위하여, K, Y, B는 학력위주의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선 취업을 권장하는 정부의 취업 안에 대한 이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전반적 반응은 부정적이었다. 2010년 6월 29일 대통령 안에 따르면 5가지 형태로 구분되었던 전문계열 고등학교는 특성화 고등학교로 일원화 하고, 마이스터고는 특목고로 전환하여 2011년 2월부터 실행한다고 한다. 여기에는 2015년까지 특성화고에 산업계 인

력수요를 전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정부 부처와 각 지자체, 업종별 협의체의 지원을 확대해 기존의 진학 위주의 전문계고를 산학 협력형 특성화고 350 곳으로 확대·재편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는 “산업계 수요를 반영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선 취업 후 진학 체제를 구축하려는 계획의 일환”이라고 교과부 관계자는 밝히고 있다(아시아 경제, 2010/06/30). 이에 따라 2010년 하반기부터 졸업생 중 상위 10% 이내의 성적 우수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필기·면접시험의 합격자는 견습을 거쳐 10급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한다고 한다(세계일보, 2010/07/07). 또한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 후 3년 이상 근무할 경우 특별전형으로 대학 정원의 11%까지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고 한다(양영디지털 고등학교, 2010/07/31). 먼저 10급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자. 군 문제 해결을 전제로 한 수락의사를 밝히는 O, 일단 안정적이라 긍정적이라는 Y, 현실을 무시한 시책이라는 J, D, M, 자신의 꿈을 우선적으로 실현할 것이라는 S, K, H, I, B, 자신은 응하지 않지만 취업의 관문을 넓힌 것을 환영한다는 G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현실을 무시한 시책이라는 D의 관점을 옮겨본다.

“...말이 공무원이지 10급 공무원, 그것도 기능직 공무원에 누가 매력을 갖겠어요. 일종의 노가다라는 건데.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겪는 어려움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애들은 상위 10%에도 해당되지 않거니와 다시 전문대 성적 맞춰서 가는 게 현실이고, 대학을 가고자 하는 애들은 나름 자신의 꿈을 찾아가고자 하는 건데 공무원이라는 말 한마디가 뭐 그렇게 대단하게 다가오겠어요?”(D)

선 취업 후 진학이라는 정부 시안에 대해선 훨씬 격앙된 목소리를 냈다. J는 전문 지식 없이 3년간 몸으로 익혀야 한다는 절망감을 표시했고, D는 역차별을 우려하면서 오히려 기회주의만을 양산할 것이라는 것, 임시방편적인 느낌이 온다는 M, J, B, 경쟁만을 부추기는 꼴이 될 것이라는 Y와 I, 더 배운 후 완전한 취업을 원한다는 S, K, G에 비해 H만이 먼저 돈을 모을 수만 있다면 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였다. M의 진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면 일단 취업을 하겠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 대학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한테 주어지는 그런 거라면 모르지만 좀 임시방편적인 느

낌이 오는데요. 지금 그거잖아요. 일단 일을 해라. 그리고 아니다 싶어 대학 가고 싶으면 가게 해 주겠다. 대학, 대학 하는 사회분위기를 부추기는 것과 뭐가 달라요?”(M)

2. 불안과 임기응변

Freud는 불안이란 각 개인에게 반격하거나 피해야만 하는 절박한 위협의 원천을 알려주는 자아의 기능을 말하며, 위급한 상황에 적합한 방법으로 개인이 반응하도록 도와주는 긴장, 우려 등과 같은 불쾌한 감정이라 하였다(이희자, 2007 재인용). 연구 참여자들은 ‘실업자’, ‘낮은 수능성적’, 대학에서의 ‘낮은 수학능력’을 피하고자 하는 불안을 나타내면서도 실질적인 노력보다는 형식적인 행동으로 반응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들은 대학 진학과 관련한 최대 난관으로 ‘수능’을 들고 있는데 ‘최저학력 등급제’의 존재 이유는 인정하면서도 내신으로만 진학할 수 있었던 때를 그리워했다. 2학년 중간쯤에야 수능을 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3학년 중간인 지금에야 구체적으로 수능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으며, 부분적인 준비만 하고 있을 뿐이지만 늘 부담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수시에 낙방하고 정시를 보게 되어 인문계 학생들과 정면으로 경쟁하게 되면 어쩌나’하는 불안을 강하게 나타냈다. 형편없는 모의고사 결과와 탐구영역 외의 기초지식 결여가 이들의 불안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었다. Y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솔직히 수시에서 떨어지게 된다면 정시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정시에 될 수 있는 확률이 몇 %나 있을까? 실업계에다가 최저학력은 그 정도만 봐두면 괜찮겠지 해서 그 정도만 공부를 했는데 만약에 정시를 봐야 한다는 통보가 왔을 땐 최악인거죠. 국, 영, 수 실력이 형편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사실인데 갑자기 정시를 바라 이러면 난 대학도 못가는 거고.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거겠죠.”(Y)

그런데 시간을 아껴가며 공부를 함으로써 부족한 실력을 채워 가는 것이 아니라 학교 보충수업에 참가하는 것으로 불안을 대체하려 했다. 이는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의 보충수업들이 수능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훨씬 못 미친다는 불만을 외치는 것과 대조적인 현상이었다. 다음에 예시되는 K의 이야기에서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수능 준비하는데 보충수준이 낮긴 해요. 그래도 억지로라도 들으면서 하려고요. 아예 보충에 안 나가면 또 나는 분명 침대에 누워 있을 테고, 뒹굴거리며 TV를 보고 있을 테고, 그래버리니깐. 그래도 학교보충을 나옴으로써 억지로라도 한 번 더 쳐다 보게 되잖아요.”(K)

또한 수능을 대비한 주요과목 선택으로 전략적인 공부를 하는 대신 ‘되도록 많은 과목에 응시하여 그중 하나만 5등급 이상에 걸리면 된다’는 요행을 바라는 태도를 취했다.

입시에 대한 부담감이나 불안은 ‘최저학력등급제’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인문계 학생들과 정면으로 경쟁해야 하는 S, D, I의 경우에 더욱 심하게 나타났다. 전공하고자 하는 분야의 성격상 실기와 관련된 업적의 반영률이 높고, 내신 반영비율은 낮다. 실기와 관련된 준비는 물론 수능 탐구영역 과목에 대한 준비에 있어서조차 학교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불안은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D의 서술을 소개한다.

“저는 의상 디자인과를 가야 해서, 수능과목에서 사탐, 외국어, 언어를 봐야 하는데 특히 사탐은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과목이라 혼자 공부해야 해요. 근데 학교에선 전혀 배려를 안 해주죠...실기가 70%를 차지해서 학원에서 살다시피 하는데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독서실 끊어서 학원 끝나는 10시 30분부터 새벽 2시까지 공부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모자라고. 수능이 2,3등급은 나와 줘야 하는데.”(D)

또한 현 학교에서 나름대로 만족 요소들을 찾은 것과는 달리 연구 참여자들은 인문계 학생들과 경쟁해야 하는 대학에서의 수학능력과 사회에 나갔을 때의 업무수행 능력에 대한 불안을 예감하기도 했다. ‘체질적으로 공부를 싫어하는데 대학에 가면 공부를 많이 해야 할 것’이라는 부담을 기본으로 가지면서 ‘대학에서 배우는 수준을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과 ‘현재의 전문 학과와 관련 없는 과목들에서 인문계에서 온 애들과 붙으면 완전 딸릴 거 같다’는 불안을 말했으며, ‘사회에 나가더라도 경쟁에 익숙한 인문계 출신들은 자신의 능력을 다 쓸 수 있을 때까지 노력할 것’이고, ‘인문계 꼴등이 전문계 일등보다 나올 것’이라는 예기불안을 말했다.

부족한 실력을 보충할 만한 스스로의 노력대신 비현실적인 행동으로 대체해 가던 참여자들의 불안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 수시원서 접수결과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앞의 <표1>에서와 같이 희망학과와 동일하게 4년제를 지원한 참여자들은 정시를 피하기 위해 2년제를 함께 하향 지원하고 있었으며, M, H, Y, G는 말한 적조차 없던 학과를 선택 지원했다. 수시에 지원한 참여자 전원은 경쟁률에 촉각을 세우고 있었으며, 불안해서 안전권을 선택했다고 했다. 또한 수시에 지원하지 않은 S와 D는 수시 합격이 어려우므로 차라리 정시 준비를 더 열심히 하는 게 나을 것으로 판단했는데 여전히 공부는 안하고 있다고 했다.

3. 자족과 소외

‘심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개인적인 시간이나 여유를 전혀 가질 수 없는 일반고 학생들에 비해 내신 관리가 쉽고, 전문계고 학생들끼리 경쟁하는 수능에서의 탐구 영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한다.’는 참여자들은 입시준비 과정에서의 소외감을 호소했다. 이들은 인문계 중심의 모의고사, 탐구영역 외의 과목에 대한 대처 미흡, 진학 지도의 부재, 방관적인 교사들의 태도 등에서 공통적으로 소외감을 경험했다. 참여자들은 직업탐구 영역이 빠져 있는 모의고사에 응해 왔으며, 직업탐구 영역은 9월까지 두 번의 기회밖에 주어지지 않았다. S의 말을 들어보자.

“직탐까지 있는 모의고사는 딱 한 번 봤고, 9월에 한 번 더 있어요. 시험을 대비해서 나는 쪽 이 과목만 준비해서 이 과목으로 수능을 보게 될 거야 라고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갈 상황이 아닌 거죠. 모의고사 자체가 인문계를 중심으로 내는 거예요.”(S)

직업탐구 문제지조차 구하기 힘들며, 심지어 K와 G의 경우엔 생물학과를 가고자 하는데도 ‘과학탐구 영역을 볼 아이들이 없을 것이라는 선생님들의 전제로 모의고사에서 과학탐구 영역은 아예 배제되었다.’고 했다.

참여자들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들은 수능준비를 위한 국어, 영어, 수학에 대한 보충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신청한 학생들만이 여름방학을 이용한 보충수업을 하므로 출석률도 높고, 수업시간에 떠드는 정도도 훨씬 덜하다고 했다. 그러나 질 낮은 수업

의 진행으로 별다른 도움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진술했다. EBS 교재로 수업을 진행하므로 인터넷 방송 강의와 학교 수업의 질을 7명의 연구 참여자들이 평가하였는데, 6명이 학교 보충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인터넷 강의를 수학능력시험 수준에 맞춘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학교 보충은 어떤 요점이나 강조점도 없이 아주 기본적인 설명만 주어질 뿐이며, 특히 영어는 중학교 수준의 수업이라서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기초를 설명하면서 수능 수준에도 다가가는 설명까지 주어지는 수업을 원했다. 그리고 정규수업과 관련하여 질 낮은 수업진행 못지않게 학생들의 관리가 전혀 안되고 방치됨으로써 수업의 진행이 어렵고, 공부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무시되는 결과를 낳아 입시준비를 하는 데에 타격을 입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분위기와 관련하여 9명의 연구 참여자들은 상위권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인문계를 가는 게 훨씬 나을 것이라고 했다. 이들을 종합할 수 있는 J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수업이 진행이 안 돼요. 애들이 수업 안 따라오면 책을 못 끝내요. 지금 회계원리랑 상업경제를 반도 못 끝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수능에 영향을 미치죠. 거기다 언어, 수학, 외국어 같은 경우는 전문계에서는 아무래도 어려워요. 수능수준에는 훨씬 못 미치는 수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인문계에서는 교과특성, 분위기 자체가 수능에 유리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 문학만 봐도 그래요.”(J)

학생들을 통제하지 않는 교사들의 태도는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졌다. 도내 주요 대학이 ‘최저학력 등급제’를 적용한다는 사실조차 학생들에게 안내를 받는 학교도 있었으며, 연구 참여자들 스스로 입시와 관련된 정보를 찾아내어 준비해야 하는 데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수능을 안 보겠다는 학생이 한 학과에 3, 4명 정도 뿐인데도 공부하라는 말 외에 진학면담이나 지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I, S, D는 자신들의 입시준비에 대한 선생님들의 홀대나 무 배려에 섭섭함을 호소했다. D의 호소를 들어보자.

“전문계고의 특성상 저처럼 특이한 것을 전공하려는 아이들에 대한 배려나 이해가 전혀 없어요. 학원에 가는 시간 빼 준다는 것만으로도 엄청 생색내죠. 실습에 빠졌다

고 한 달 내내 바닥 청소한 적도 있고, 나에겐 절대적으로 불필요한 레시파를 10번 씩 써야 하는 일도 있었어요.”(D)

4. 진로고민과 현실과의 타협

“그냥 저는 사이버니가 과목은 모르고 컴퓨터 쪽으로 많이 하겠구나! 해서 간 거예요. 그냥 컴퓨터 만지면 재밌을 거 같아서. 컴퓨터 관련된 사이버정보과 하다가 저한테 맞는 게 느껴지고 재밌어요.”(O)

라는 O의 기술에서처럼 참여자들은 성적에 맞춘 전문학과 선택이었지만 학교 내에서의 상대적인 우월감이나 흥미요소를 찾을 수 있다며 만족을 나타냈다. 그러면서도 미래에 대한 밑그림이나 소신은 드러내지 못했다.

참여자들은 중학교에서 진로상담은 물론 전문계 고등학교의 특성이나 전문학과에 대한 안내를 받은 경험이 없었다. 그런데 대학입시 설명회에서도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안내보다는 지원율을 높이는 데에만 신경을 쓰는 허구적인 틀에 노출되었다. 학과 간의 신입생 유치 경쟁 또한 심하다 보니 검증되지도 않은 취업률만을 내세운 열기 속에서 참여자들은 혼란을 느끼고 있었다. 이는 J의 진술에 잘 나타나 있다.

“3개 전문계 입시설명회를 들었어요. 장점만 있대요. 근데 질문을 했더니 취업률은 100%가 아니래요. 어이가 없죠. J대 입시설명회를 들었어요. 근데 성에 안차잖아요. 도대체 내가 어느 학과를 가면 좋겠구나! 정도의 감을 잡을 만한 안내가 없어요.”(J)

O만이 개인적으로 청소년 상담기관에서 진로상담을 받았을 뿐 진학상담이나 진로상담 또는 교육을 받은 경험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성검사가 학교에서 이루어지고는 있었으나 결과지만 돌려줘질 뿐 그 이상의 개입은 없었다고 했다. Wee(We education emotion) 센터의 역할을 알고 있는 학생은 거의 없었으며, Y만이 진로 고민으로 한 번 방문했으나 더 이상의 진척은 없었다고 술회했다. 결국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전공학과와 적성이 맞는지 확인할 기회가 없었다고 하며 소신 있게 진학 학과를 선택하지 못하고 있었다. Y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내 적성을 대충이라도 알고 있다면 부모님 반대쯤 무릅쓰고, 끝까지 주장을 해서 내가 원하는 과에 가겠죠. 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거 같아요. 내 적성이 이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도 없었어요. 헛갈려요. 자신도 없고. 오히려 내가 못하는 음악 같은 게 발견을 못했을 뿐이지 내 적성일 수도 있잖아요.”(Y)

진로 고민이 덜한 S와 I조차도 흥미를 느끼는 분야에 관한 학원지도를 받으면서 진로를 결정하였는데, 선택한 분야에 대한 흥미와 재능 간의 갈등에 휩싸인다고 표현했다. 성적 때문에 의상디자인 학과를 갈 수 없다면 유학을 알아 볼 것이라며 학과에 대한 강한 집념을 표현한 D의 말을 들어보면 연구 참여자들의 실태가 짐작될 것이다.

“...돈에 관심이 많아서 한동안 무역 쪽에 관심이 있기도 했는데 결국 의상디자인 쪽으로 마음을 굳혔어요. 제가 워낙 파격적이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을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할머니가 의상디자이너셨어요. 헌데 거기에 잘 적응이 될지는 직접 부딪혀 보기 전에 모르죠. 제 적성을 탐색해볼 기회는 실질적으로 없었으니까요.”(D)

O의 경우에만 일관성 있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선배들이 어렵다고 했던 전산회계가 자신에겐 어렵지 않았고, 성적도 잘 나오니까 자신에게 맞는 거라 여겼고, 적성검사결과를 해석하고 직업세계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많은 걸 생각해 볼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자신의 적성이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비교적 잘 할 수 있는 전산회계 쪽으로 변함없는 선택을 할 수 있었다고 했다.

〈표 1〉만 보았을 때 자신의 적성이나 관심분야에 소신 있게 지원한 것으로 보이는 참여자들의 구체적인 학과 지원 배경을 알아보자. J는 적성과 상관없이 모범상 수상 경력으로 학교장 추천을 받아 갈 수 있으면서 신생학과나 다름없는데 자연계에 있어 낮은 경쟁률이 예상되어 학과지원을 했다. K는 내신 반영률이 높은 수시에도 자신이 없지만 수능 성적이 70% 반영되는 정시엔 더욱 자신이 없기 때문에 동물과 관련이 있을 것 같으면서 가장 비인기학과인 생물학과를 처음부터 선택했었기에 수시에서 달리 선택할 이유가 없었고, 응급구조과는 몸으로 때우는 일일 것 같아 무조건 원서를 제출했다. B는 공부할 마음이 전혀 없어서 큰 키 하나 믿고 지원했고, I는 높은 실기 반영률 때문에 다른 전공으로 전향하고 싶지만 그동안 학원에 쏟아 부은 시간과 비용

이 아까워 그럴 수 없다고 하였다.

한편 D의 부모를 제외한 참여자들의 부모들은 도내의 4년제만을 고집했다. S, B, I의 경우엔 극심한 갈등을 겪고서야 도내엔 관련학과가 없다는 이유로 허락을 받아낸 경우였다. 부모의 반대에 봉착한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자질이나 적성과는 상관없이 대학선택을 하고 있었다. 이는 다음의 Y 이야기에 잘 나타나 있다.

“육지 대학에 엄청 가고 싶지만 꿈도 못 꾸요. 관심 있는 유아교육과도 2년제라 못가요. 부모님이 좀 세서 한 번도 이겨본 적 없어요(웃음). 잘하는 것도 없고 해서 일본 어랑 관련된 그런 곳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일단 대학 간다는 꿈이 생긴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유치원 교사도 접은 건 아닌데요. 일단 생각 안하고 있어요.”(Y)

현실과의 타협결과가 수시 접수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자. S와 I는 수시와 정시에서의 내신 반영률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므로 정시에 승부를 거는 쪽으로, 의상 디자인 업체에서의 조모 위력에 뒤늦게 눈을 뜬 D는 관련 학과의 높은 경쟁률과 자신의 소질, 실력과의 차이에서 오는 큰 불안이 작용된 결과 명망이 있는 국내 4년제만을 고집하던 초기의 태도와는 달리 차라리 유학을 가고 말겠다고 했다. 그 외의 참여자들은 도내의 국립 4년제를 고집하는 부모의 의견과 내신 수준에 따른 지원을 했다. O는 자신의 일차 목표였던 B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여건임에도, ‘대학 졸업 후 도내에 자리 잡아야 하고 그러려면 도내 대학에서부터 인맥을 쌓아가야 한다’는 부모, 교사, 친척들의 말에 따른 지원을 했다. G는 재능이 있다고 여겨지고 정말 하고 싶어 하는 일러스트레이션에 대한 미련을 뒤로 하고, 막연하게 차선으로 희망했던 학과마저 버린 다음 ‘좋아하는 동물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고, 비전이 있다고 아빠가 추천하신’ 생명공학과를 지원했다. J와 H는 내신에 맞춘 지원을 하면서 안전성 차원에서 2년제를 함께 지원했고, K, M, Y는 경쟁률이 낮은 학과를 선택했는데 K는 미련을 버릴 수 없는 2년제 응급구조학과를, Y는 친척이 취직문제를 거론하면서 강력히 추천한 간호학과를 안 좋은 결과를 예견하면서도 지원했다. B의 경우엔 낮은 내신과 수능에 대한 무력감, 버릴 수 없는 꿈을 종합하여 수시지원을 했는데 2년제라면 정시에서도 받아 줄 거라는 희망을 드러냈다.

경제적 이유와 도내의 문화적인 편견을 이겨내지 못하고 ‘자신의 적성을 확신할 수

있는 상담심리학과를 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H의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자.

“가고 싶었던 과를 따라 육지로 못간 게 너무 짜증나서 공부할 마음이 안 생겨요.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이 끝나니 모든 게 아쉬움으로...5.1:1이라는 경쟁률이 불안하게 하지만 정시준비는 안 해요. J대 떨어지면 2년제 같은 데 가서 나중에 어떻게 해서든 육지로 취직을 할까 해요. 돈이 모이면 상담심리 공부를 하게 될지도 모르죠.”(H)

5. 비상시도

참여자들은 고3을 ‘새로운 가능성을 향하는 시간’으로 여기고, 대학을 ‘직업적인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로 간주하는 까닭에 고3인 지금은 불안이나 고난을 견뎌내면서 작은 목표나마 실천해 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었다. 입시미술학원에서 고군분투하는 S, D, I는 내신 및 수능 성적 관리를 위해 의미 없는 학교에서의 출결관리를 위한 노력을 하고, 공부를 조금이라도 더 하기 위해 고독한 싸움을 하고 있었다. 여기서 고등학교에서 상위권으로 진입한 H, O, G의 경험에 차례대로 귀 기울여 보자.

“직탐 문제지를 구하기 위해 시간을 허비했지만 구하기 어렵다는 말을 들었어요. 70% 이상 나온다는 EBS 교재로 공부해야죠. 안심은 안 되지만 식당일 도우면서 도서관에 가곤해요. 고등학교 입학 당시부터 대학은 꼭 가야 된다 생각했고, 열심히만 하면 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봤어요. 조금만 하면 최저 등급은 통과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H) / “방학하면서 최소한 하루에 5시간은 혼자서 공부하자 하는데 많이 힘들어요. 습관이 안 돼 있어서...어떤 경우에도 영어는 필요할 것 같아서 결국 영어로 수능 과목을 정했어요. 정말 포기하고 싶죠. ... 근데 멘토 선생님 도움을 받아서 인지 요번 모의고사에선 5등급이 나왔어요. 이제 독해도 좀 되고, 수능 끝난 다음엔 영어만 해서 토익 점도 볼 거예요...저희 학교 대부분의 애들 사는 것처럼 동생이 그렇게 될까봐서요, 제가 막 야단치고 혼내게 되요.”(O) / “...소심함을 고쳐 가려면 내가 나를 믿는 길 밖에는 없는 거죠...어제부터 도서관에서 4시간씩 수능 공부하고 있어요. 국어 독해가 떨어져서 모의고사 보면 시간이 모자라거든요. 혼자서 속독연습을 많이 해요.”, “선생님 이번 모의고사에서 제 시간 안에 국어다 풀었어요.”(G)

성취동기가 확실히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O와 G는 탈출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있는 것으로 보였으며, 수시나 정시나 별 차이 없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었다. 이처럼 대다수의 학생들은 공부가 싫고, 체질적으로 익숙하지 않지만 최선을 다 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었고, 작심삼일의 연속이지만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을 서툴 게라도 시도하고 있었다.

6. 공교육에 대한 불만

참여자들은 공교육에 대해 많은 불만을 토로하였다. 학벌위주의 사회분위기가 대학 진학을 해야만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대학을 못가면 인생전반에 대한 패배라는 인식을 갖고 있고, 뒤늦게라도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가고자 하는 한, 어느 시점에서 든 누구라도 도움 받을 기회를 정당하게 부여받기를 원했다. 이에 대해 I의 이야기를 대표적으로 들어보자.

“사실상 어려서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를 아는 애들은 거의 없어요. 자기 적성을 언제 깨닫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요. 뒤늦게라도 철이 들어서 공부를 하겠다는 애들이나 자기분야를 가겠다는 애들이 그때그때 도움 받을 수 있는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과를 원하면 바로바로 바꿀 수 있게끔 해주고, 취업하고자 하는 애들은 정당한 대우를 받고 취업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해요. 정말 공부 쪽을 원하는 애들이라면 따로 모아서 입시 준비를 해주고, 취직을 원하면 방과 후 활동으로 현장도 가 보고 기술도 배울 수 있게끔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I)

I는 진로결정까지의 긴 여정과 교육의 장이 제 역할을 해내려면 학생들의 욕구가 수렴되어야 하고, 자신의 길을 찾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함을 이야기 하고 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원하는 것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진로지도였다. 초등학교 때 부터 기본적인 학문 바탕은 가르치면서 개개인이 자신의 적성을 찾아 키워갈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주어지길 바랐다. 따라서 전문계 고등학교 진학 시 최소한 전반적인 전문계고의 특성과 각 전문 학과에서 배우는 것이 무엇이고, 어디에 초점을 맞춰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정도는 안내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성적에 맞춰 전문계고 진학이

이루어졌다면 사회적응을 위한 최소한의 준비라도 고등학교에서 갖춰지길 원했다. 이들은 취업의사 유무와 상관없이 국어, 영어, 수학은 1학년 때부터 단계적인 학습항상이 이루어지길 원했으며, 수준별 분반이 이루어진 수업이 진행되길 원했다. 국어, 영어, 수학 실력이 인문계고 출신들과 크게 차이나지 않아야 진학 또는 전과를 하고자 할 때 용이하다는 것이었으며 취업을 원하는 학생이라도 사회에서 무시당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다. 또한 지금처럼 수준별 분반이 이루어지지 않고 진행되는 수업은 절대 효율적일 수 없으므로 최소한 공부를 할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만이라도 분리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꿈을 향해 노력하는 애들은 배려를 해줘야 한다고 했다. 전문계 고등학교라는 특성이 있고, 교육과정이 따로 존재한다 할지라도 자기 분야를 찾아가는 애들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S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공부하겠다는 애들에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런 애들끼리 모여서 잘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고, 애들이 자신의 적성을 찾도록 많은 기회를 주는 게 좋겠죠. 그러려면 다양한 과가 있어야 하고, 전과나 부전공을 할 수 있어야죠. 누군가 학교에서 도움을 줄 수 없는 분야로 진로를 정한다면 그에 필요한 배려도 충분히 해야 한다고 봐요. 앞으로의 인생이 걸린 거잖아요.”(S)

또한 참여자들은 학교에서 신속하고 다양한 정보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욕구가 적절한 시점에서 채워지길 바라면서 현실적으로 전문계고다운 실속조차도 못 챙기는 실정을 지적했다. B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정보산업고. 얼마나 이름이 좋아요? 누가 봐도 정보특화 고등학교잖아요. ○○고등학교로 바꿔 놓고서 한다는 소리가 일반계를 만들 거래요. 솔직히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은 이미 인문계 고등학교로 빠져나갔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런 형식적인 것이 아니에요. 정보특화에 맞는 시설이 갖춰져 있으면 우리가 전문적으로 뭘 해야 돼요. 근데 학교에서는 어정쩡하게 전문교과보다 수학하고 국어, 영어를 강조해요. 이건 사회의 틀이에요. 그렇다고 제대로 된 수학, 국어, 영어를 가르쳐주지도 못해요. 학생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어요.”(B)

IV. 결 론

이상의 연구 결과에 의거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장동환(2008)의 연구에서와 같이 본 연구 참여자들도 취업보다는 대학진학을 원하고, 대학을 나와야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취업할 수 있다고 여겼다. 정부가 기능인력 양성차원에서 힘쓰고 있는 선취업 후 진학체제 구축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전문계고 학생들의 진학률이 급상승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연구 참여자들이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각자의 분야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담보로 한 사회적 지위가 보장되지 않는 한 진학률은 계속 상승할 것이다. 이들이 원하는 건 대학을 나오지 않고서도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전문성 함양과 그에 마땅한 사회적 대우인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이다. 좀 더 나은 취업을 위해서 그리고 사회 분위기를 무시할 수 없어서 대학 진학을 결심한 연구 참여자들은 고등학교 진학 시처럼 성적에 맞춰 진로학과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의 근저에는 적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였다. 전문계 고등학교의 장점으로 시간적 여유가 많고, 전문 학과들이 있어서 자신의 적성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입을 모았던 연구 참여자들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답은 이해림(2010)의 연구결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응답자의 69.9%가 진로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받고 싶다고 답하였고, 55.4%가 진로상담 전문가로부터의 서비스를 원하면서 진학 및 취업준비에 가장 어려운 점은 정보부족이라고 답했다. 더 나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60.5%가 대학 진학을 희망하고 있었는데 연구 대상자들이 밝히는 취업조건은 초임의 실질화와 학력차별화가 적용되지 않는 각종 기회 및 혜택이 보장되기를 요구하면서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대기업이나 50인 이상의 중소기업에 취업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또한 학력 간 임금격차는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남학생의 경우 병역 후 동 기업에 재취업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전문계 고등학생들의 심한 진로 갈등을 최소화하고, 전문계 고등학교의 일차적인 교육목표라고 할 수 있는 ‘중견 직업 기술인 육성’이 가능하려면 전문계 고등학교 선택 이전부터 진로 탐색의 기회가 체계적으로 주어져야 하며,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이 전문계고 교육을 받은 사람에 비해 직업선택, 보수, 승진 등에 크게 유리한 실질적인 사회적 상황이 개선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수능을 준비하는 참여자들은 첫째, 일정한 과목을 전략화하고,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근본적인 어려움을 느끼고 심한 불안을 경험하면서 수준별 분반 하에서의 국어, 영어, 수학의 수준향상을 원했다. 둘째, 내신관리의 용이성을 기술하면서도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입시체제를 꼬집었다. 셋째, 자신의 적성이나 소질을 파악하지 못한 것과 형편없는 학력 수준이 진로선택을 한정짓고 있음을 인정하고 대책을 탐색하는 대신 현실과의 타협점을 찾아 진학 대학 및 학과를 선택했다. 최금숙(2009)에 의하면 자신의 의지로 진로를 탐색하고 정보를 수집하여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 후의 진로를 선택한 학생들은 선택한 진로에 대해 만족하며 책임을 갖고 생활하지만, 가정환경이나 성적, 주변인의 권유 및 사회적 인지도 등 주변의 영향을 고려해 진로를 선택한 졸업생들은 재취업이나 진학, 편입 및 재수를 생각하며 고민하고 있었다. 진로고민과 현실과의 타협에서 소개한 H의 진술이 보여주듯이 갈등에 휩싸인 참여자들의 앞날을 예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연구참여자들은 공교육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표시하였는데 이러한 불만은 적성을 탐구할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는 교육체제에서 연유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강희(2008), 장동환(2008), 이광성(2009), 이혜림(2010), 윤승철(2010) 등의 연구에서도 학교에서의 진학지도와 취업지도를 함께 요구하면서 전문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적성 파악을 원했는데 이는 본 연구 참여자들의 바람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대학을 ‘직업적인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로 간주하고, 불안이나 고난을 견뎌내면서 작은 목표나마 하나씩 실천해 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연구 참여자들의 부담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V. 논의 : 입시경험에 대한 성찰

Van Manen의 현상학적 연구의 목적을 ‘주의 깊게 계발된 사례를 바탕으로 교육학적 상황에서 기민하게 행동하는 법을 터득하는 것’(이혁규, 2005)이라는 관점에서, 지금까지 들여다본 전문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대학입시 경험이 우리의 교육 실천에 어떤 성찰적 의미를 주는지 논의해 보려고 한다. 논의의 주제는 전문적인 진로지

도 및 진로상담, 교육결과의 균등화 노력, 전문계고의 역량강화이다.

1. 전문적인 진로지도 및 진로상담

오래전부터 강조되어왔던 것과는 달리 본 연구를 통해 학생들이 학교에서 적절한 진로지도 및 상담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참여자들은 전문계 고등학교의 교육목표에 따라 고등학교 3년 대부분은 전공교과목 내용 습득 및 실습으로 보내게 되고, 졸업 후 갖고 닦은 전공실력으로 산업현장에 나가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인식이나 정보 없이 전문계고 진학을 하고 있다. 전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한다는 것은 장래의 직업이 이미 결정된다는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성적에 맞춘 진학을 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직업선택은 자신에 대한 이해와 직업에 대한 이해가 앞서야 한다. 즉, 자신의 적성, 흥미, 성격, 주변 환경, 능력, 직업에 대한 가치관과 자신이 선택한 직업이 하는 일, 되는 길, 이를 수 있는 가능성, 그 직업의 전망, 근무환경 및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판단하여야 한다(김봉환 외, 2006). 진로를 선택하기까지는 스스로 어느 정도 시간의 목표를 정해 놓고, 자신이 원하는 분야를 결정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자신에게 맞는 직업이 어떤 것일지 차근차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는 진로지도 및 진로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심리검사를 통해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자신이 어떤 일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어떤 일을 더 잘할 수 있는지를 안다. 심리검사 결과에서 제시된 직업 목록 중 몇 개를 선택해서 직업탐색을 하여야 한다. 최종적으로 한 두 개의 직업을 선택해서 그 직업을 가지려면 어떤 학과를 가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경로가 있는지, 평소에 어떤 분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지 등을 탐색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이 충실해져 학생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으려면 전문가에 의한 지도 및 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선행연구 및 본 연구 참여자들의 목소리에 기초한 연구자의 견해를 피력해 보겠다. 초등학교에서는 교과지도 안에서 진로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 다음 Super의 진로발달 단계(김봉환 외, 2006) 중 탐색기에 해당하는 중학교 과정에서부터 전문적인 접근이 이루어지면 효과적일 것이라 사료된다. 중학교 과정에서 자

신의 욕구, 흥미, 능력, 자아관 및 성격 등을 고려한 잠정적인 진로를 선택하게 하여 그것을 환상, 토의, 일, 봉사활동, 기타 경험을 통해서 시행해 볼 기회를 제공하면서 고등학교 계열 및 전문계 고등학교에 관한 상세한 설명 및 안내가 주어지고, 고등학교의 선택이 대학선택이나 취업과 어떻게 연계 되는지 까지 지도된다면 학생들이 보다 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고등학교 및 대학선택을 해 갈 것이라고 여겨진다. 선행 연구와 본 연구 참여자들은 전문적인 진로지도 및 상담을 요구한다. 그런데 체계적이고 시기적절한 전문 진로교육을 가능케 하고, 원하는 개개인에게 전문적인 진로상담이 가능하도록 하는 인력배치 없이는 전문계고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는 힘들 것이다. 또한 문벌중시 사회 풍조를 완화할 수 있는 힘은 학부모에게 있다는 사실을 적시해야 할 것이다. 초등학교 때부터 학부모를 상대로 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진로교육을 실행하여 자녀가 진로지도 및 진로상담을 언제 어떻게 받으면 좋을 지와 전문적인 진로지도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정보가 함께 제공된다면 학교현장에서의 버거움을 덜 수 있고, 부모의 지도하에 실질적인 진로지도 및 진로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자신의 직업 및 진로에 대해 고민을 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충분한 진로적 고민이나 시험기를 거친 후의 진로선택이야말로 학생 개개인의 목표를 명확히 해 줄 것이며 삶의 태도 또한 진지하게 만들어 갈 것이기 때문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대학만 가고 나면 뭔가 해결될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자기분야만의 전문성이나 경쟁력에 대한 고려 없이 성적에 맞춘 선택을 또 다시 감행하고 있다. 대학의 학과 선택을 하기 위해선 우선 자신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목표의식이 앞서야 하는데 이러한 원칙을 무시한 학생들의 대학 진학은 좀 더 높은 수준의 무력감 및 진로 고민의 양산을 예견하고 있다 하겠다. 적성 및 소질을 찾을 수 있는 경험의 부재에서 오는 혼란은 목표의식의 상실을 초래하고, 목표의식의 상실은 학문습득의 가치발견의 기회를 앗아갈 수 있다.

2. 교육결과의 균등화 노력

정다은(2010)의 연구에서와 유사하게 본 연구의 참여자 대부분은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갑자기 공부가 어려워졌고, 중학교에 가니까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도움 받을 곳이 없었다고 술회한다. 참여자들은 학원을 못 다녀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는데 이는 부모의 경제적 수준이 자녀의 교육적 경쟁력을 결정하는 우리 교육의 현주소를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실질적인 교육의 기회균등 문제와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21C에서의 교육기회 균등이란 배경이나 부모의 환경, 학업성취의 차이로 인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의 제한을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는 허용적 균등만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사교육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또래에 뒤처졌다고 공교육의 장에서마저 학습적으로 방치된 결과 낮은 성적을 얻어 아무런 의식 없이 성적에 맞춘 고등학교 진학을 한 참여자들은 대학 진학을 하고자 하는 욕구마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전문계고의 진학이 입시위주의 교육환경, 개성을 말살하는 획일적인 주입식 교육으로 말미암아 수동적, 상대적으로 밀려난 결과라면 이들에 대한 결과의 균등까지도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이 인문계 고등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과 유사하길 바라는 국어, 영어, 수학은 새로운 교육 개정안에서도 기초학문 교과로 분류된다. 기초학문 교과란 모든 교과를 성공적으로 학습하는데 필수적이고, 개인의 전문적인 능력을 향상시키며 민주 시민으로서의 합리적 의사 결정 방법을 습득하는 데에도 필요하고, 미래의 지식 기반 정보화 사회를 살아가는 데에도 필수적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선행연구들(최금숙, 2009; 이강희, 2008)에서도 기초학문 교과에 대한 수요는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기초 교과의 실력을 향상시키길 바라며, 기초교과의 실력부족은 자신의 진로를 밝거나 수정하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호소한다. 또한 기초 교과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수단으로는 수업시수 확충과 기초부터 천천히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 것, 구체적인 학습요령을 알려줄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본 연구 참여자들이 요구하는 학생들의 수준 차이 및 욕구 정도를 고려한 개별화 지도가 필요함을 주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문계고 학생들이 각각의 위치와 수준에서 기초학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국어, 영어, 수학 반만을 따로 운영할 수 있는 수업시간을 체계적, 조직적으로 마련하여 수준별 학습이 입학 시부터 꾸준히 이루어진다면 교육의 결과적 균등은 일정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각 전문계 고등학교의 특성에 맞게 또는 학생들의 특성과 요구에 알맞게, 또한 졸업 후의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학습 방법이 마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교사의 많은 계획과 준비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사교육을 지양하고 공교육을 강화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3. 전문계고의 역량 강화

산업구조의 변화와 학벌주의의 풍토로 전문계고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이 증가하면서 전문계고 본연의 취업기능이 많이 약화되고 있다. 기초기능 인력보다는 전문기능 인력을 선호하는 산업체와 경력자를 우선 채용하고 있는 주요 기업체들은 역량이 부족한 전문계고 졸업생 채용을 기피하며, 일용직이나 비정규직 채용 비중을 높여가고 있다(손수혁, 2010). 또한 학벌주의 사회에 따른 직업교육 기피현상(대통령자문 교육혁신 위원회, 2005)에 따라 전문계고의 입학률이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재학생들도 학교에 대한 부적응으로 중도 탈락률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전문계고 졸업생들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사실은 연구 참여자들의 목소리를 빌어서 확인할 수 있다. 졸업하면서 얻는 것은 형식적인 과정을 통해 얻어지는 자격증 몇 개 이지 산업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전문성이 확보되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또한 수능을 보아서라도 대학교로 진학하고자 하는 소수의 학생과 취업을 하고자 하는 각 반의 3~4명의 학생을 제외한 재학생들은 무기력에 빠져 있으며, 이 대다수의 학생들이 학교 부적응적인 행동을 나타냄으로써 전문계고는 성적이 저조한 학생들이 가는 학교라는 낙인효과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실업교육의 활성화를 모색하는 노력이 요구되는데 이를 위한 몇 가지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면, 첫째, 학생들에 대한 동기부여에 대한 관심이다. 실력이 부족하여 전문계고로 진학했다는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자존감과 자신감을 상승시킬 수 있는 성취동기 향상 프로그램 진행과 함께 개별화의 원리에 맞는 학습이 진행되고, 각자가 작게라도 뚜렷한 목표의식을 갖도록 유도한다면 내적으로 동기화되어가리라 본다. 둘째, 각 지역 또는 각 전문계 고등학교의 특성 내에서 학생들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그리고 졸업 후의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학습방법을 마련하는 것이다. 셋째, 전문계고의 정체성 확립이다. 이를 위해선

국가의 기능인력 양성이나 개인의 직업 선택의 기회 확대 측면에서 전문계고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진로지도 및 진로상담 하에 고등학교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고, 학력 간 격차가 없는 임금 및 취업조건들에 대한 제도적 보장 노력이 국가사회적 차원에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성적에 따른 전문계고의 입학 형태가 계속되는 한 그리고 대학 졸업자가 전문계고 졸업자에 비해 직업선택, 보수, 승진, 배우자 선택에 있어 유리한 상황이 전개되는 한 전문계고 교육은 어려운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혜림(2010)의 연구대상자들의 목소리에 따라 학력 간 임금 격차는 정부가 지원할 필요성도 있다고 본다. 넷째, 정부와 학교, 산업체 간의 원활한 연계 이행으로 직업교육을 통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비전 제시이다. 산·관·학 협력을 통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해 전문가적인 실무능력을 갖춘 리더를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하는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이와 부합될 수도 있겠다. 다만 학생들이 직업교육을 통해 산업체 현장중심의 기능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양질의 기능 인력을 확보하여 산업기반을 구축할 수 있으려면 정부차원의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교육통계연보(2008). 교육통계서비스. <http://std.vedi.re.kr>(2010. 8. 10)
- 교육과학기술부(2009). 교육통계 DB
- 김명화(2010). 전문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석사학위 논문.
- 김봉환·정철영·김병석(2006). 학교진로상담. 서울: 학지사.
- 대통령자문교육혁신위원회(2005).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 2005. 5. 12.
- 성성진(2010).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관련 요인의 인과적 관계분석.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손수혁(2010). 전문계 고등학교 특성화 방안 탐색: 성공사례 중심으로. 위덕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경립(2003). 현상학적 연구의 이론과 실제. 간호학 탐구, 제12권 제1호, pp. 49-68.
- 세계일보(2010. 7. 7일자) 9면(사회) 기사 : 전문고·대 졸업생 공무원 특채.
- 아시아경제(2006. 6. 30일자). 10면(사회) 기사 : 특성화고·마이스터고로 고교직업교육 집중.
- 양영디지털 고등학교(2005). 선취업 후진학제도. <http://y-y.hs.kr>(2010. 7. 31)
- 윤승철(2010). 전문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대학원 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강희(2008). 전문계 여고생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바람 탐색.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광성(2009). 전문계 고등학생의 학교 만족도와 진로지도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성주(2008). 한국형 마이스터고의 성공적인 정착방안. 서울 공업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pp. 25-36.
- 이혁규(2005). 교과서 쓰기 체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교육인류학 연구, 제8권 제1호, pp. 91-124.
- 이혜림(2010). 경기도 공업계열 고등학교 학생의 취업에 대한 인식과 활성화 방안. 한국 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희자(2007). 대입수험생의 입시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동환(2008). 전문계고 대학정원 외 특별전형이 전문고 활성화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다운(2010). 전문계 고등학생의 영어학습 저해요인 및 개선방안.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금숙(2009). 정보산업 고등학교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문제에 관한 질적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Colaizzi, P. F. (1978).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s it. In R. Vaile & M. King(Eds.), *Existential 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Freud, S.(1965). *A general introduction to psychoanalysis*. New York : Washington Square.
- Polkinghorne(1989).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s. In R. S. Valle & S. Halling(Eds.), *Existential-phenomenological perspectives in psychology*. New York: Plenum Press.

ABSTARCT

A Phenomenological Approach to the Experiences of the University Entrance Examination by Vocational High School Seniors

Kim, Young-Hee* · Kim, Sung-Bong**

This study sought mainly to better understand the experiences of the university entrance examination undertaken by vocational high school seniors through a phenomenological lens, within the present context of the university entrance rate outnumbering the number of available jobs. Following depth-interviews with the 11 study participants and analysis of the data using Colaizzi' s phenomenological, their experiences were summarized as follows: a university degree is seen as a basic premise for life, anxiety and temporary expedient, self-satisfaction and alienation, difficulties within their careers and compromises with reality, attempts at elevating themselves, complaints about the quality of public education. Based on our findings, this study went on to discuss the need for more specialized career guidance and ongoing career consultations, greater efforts aimed at equalization of educational outcomes, and strengthening the capability of vocational high schools.

Key Words : vocational high schools, experience in preparing university
entrance exams, phenomenological study

투고일 : 12월 10일, 심사일 : 12월 24일, 심사완료일 : 1월 18일

* The doctor's course of Jeju National University

** Jeju National University

